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대인관계와 스트레스대처에 미치는 효과

김 영 천*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과정

나 운 환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

정 승 원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요 약》

본 연구는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장애인의 대인관계와 스트레스대처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한 실험연구이다.

연구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연구대상은 경남소재의 국립부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정신분열병환자 중 실험군 18명, 대조군 18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는 임의 표출한 40명을 대상으로 각도구의 신뢰도 검정을 실시한 후 대인관계 척도, 스트레스대처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동질성 검증은 χ^2 -test를 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및 사후검사 차이 검증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재활프로그램은 정신장애인의 대인관계향상에 효과가 있다.

둘째, 직업재활프로그램은 정신장애인의 적극적 스트레스대처방식에 효과가 있다.

따라서 상기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대인관계나 스트레스대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재활기관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이 마련되어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재활과 사례관리를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정신보건분야에 직업재활 개발인력이 배치되어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지지프로그램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정신장애인 재활에서 직업재활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직후 뿐만 아니라 추후 측정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주제어 : 정신장애인, 대인관계, 스트레스대처

* 교신저자(youngbaram04@hanmail.net)

1. 서론

1. 연구의 의의

노동은 장애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인간이 의미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장애인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장애 특성과 비장애인과의 취업 경쟁으로 인해 노동 시장의 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 사회생활 적응 기술의 문제는 사회 통합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신장애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발병하여 인간의 인지, 지각, 정동, 의지, 행동, 사회활동 등 다양한 정신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으로서 일단 발병하면 병이 계속 악화되고 증상이 호전되었다가도 다시 재발하면서, 그 경과가 지속적인 적응 능력의 저하와 인격의 파괴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외로움과 좌절감을 느끼며 우울과 고립감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한다(Liberman, 1982).

만성정신장애인은 장기간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잦은 입원과 사회활동의 위축으로 사회적 활동과 일상행동이 퇴행되거나 긴장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만성화의 과정을 밟으며 스트레스나 대처기술이 약하고 자존감의 저하, 대인관계, 직업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만성정신장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회경제적 활동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일 수 있다. 실제로 만성 정신장애인들은 문제해결능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상사의 비평을 수용하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황태연 외, 1996). 또한 정신장애인은 환경적인 자극에 지나치게 과잉 반응하는 민감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기술과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최소화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Neucholson & Herfeld, 1992).

따라서 정신장애인은 약물치료로 증상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사회적응력을 길러주기 위한 정신사회 재활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위기상황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이홍식, 1995). 정신장애인의 음성 및 결손증상은 약물로 치료하고 있으나 양성증상에서와 같이 효과가 좋지 못하다. 이는 약물 자체만으로는 일상생활기술, 대응기술을 향상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활치료 프로그램의 개념적 틀은 '취약성-스트레스-대처능력 모형(vulnerability stress coping competence model)'으로 주요 정신장애의 발병, 경과, 증상의 추세 및 사회적 기능이 생물학적·환경적·행동적 요인들 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설명된다(Neuchterlein & Dawson, 1984). 이 개념에 의하면 기존의 치료적 개입에 의하여 약물로 신체적 취약성이 완화된다 해도 정신장애인이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극복능력을

초과하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 지지가 제공된다면 자신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증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사업은 격리·수용위주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그리고 치료·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적 접근에서 이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추가하여 보건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면서 정신보건영역에서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하경희, 2000; 김정자, 2005).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1999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정신장애인도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범주 확대 및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취업기회 제공 등을 통한 자립, 자활기반조성으로 생산적 복지강화를 추구하게 되었다(우재희, 2000).

만성 정신장애인의 정신·사회 재활 프로그램 가운데 직업재활은 정신질환의 재발을 예방하고,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에 반드시 필요한 선행요건으로서 대부분의 정신장애인 재활을 담당하는 병원이나 기관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이다. 일을 하는 사람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사회적 기능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직업과 일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정신장애인이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생활 세계와 일상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정신장애인들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분명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이와 같은 악순환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증명되고 있다(황태연 외, 1995; 서진환, 1999; 서진환, 이만홍, 2000; 이연주, 2000; 서영희, 2001; 백운아, 2001; 나동석, 2001; 노춘희, 2001).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대인관계 적응과 스트레스 대처에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에 초점을 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현행 정신장애인의 재활이 주로 정신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병원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2. 연구의 목적 및 가설

본 연구는 경남소재 국립부곡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은 자를 대상으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대인관계와 스트레스대처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해

보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밝힌다.

둘째,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스트레스대처에 미치는 효과를 밝힌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대인관계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 2.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적극적 스트레스대처방식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1) 정신장애인

1999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표에 따라 정신장애인은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精動障礙),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된다(강위영 & 나운환, 2001).

본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은 DSM-VI(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의 진단기준에 의해 정신분열병으로 진단 받고 경남 소재의 국립부곡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환자를 말한다.

2) 대인관계

증가된 자의식, 타인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에 기초하여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생산적으로 함께 일하고 효과적으로 함께 배우도록 허용해주는 기술을 말한다(임갑빈, 1993).

본 연구에서는 Guerny(1977)가 개발하고 문선모(1980)가 번역, 전석균(1994)이 수정한 대인관계 변화 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하위영역으로는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의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3) 스트레스대처

환경적 요구와 개인 내적 요구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갈등이 개인의 대처자원에 부담을 주거나 초과할 때 이를 다루어 나가기 위한 인지적·행동적 시도를 의미한다(Lazarus & Folkman, 1984).

본 연구에서는 Folkman 과 Lazarus(1985)가 개발한 6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대처 방식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김정희와 이창호(1985)에 의해 수정되어진 62개의 문항을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이 대처방식 척도는 문제 집중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대처를 적극적 대처로, 정서 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대처를 소극적 대처로 대별하였으며 각 대처방식별로 합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대처방법의 이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연구대상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경남소재의 국립부곡병원 재활병동에 입원하여 정신분열병진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급성기 증상이 소실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연구도구를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로서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임의 표출한 40명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통해 각 도구의 신뢰도 검정을 실시한 후 사용하였으며 연구기간은 2006년 1월1일부터 3월 31까지이다. 연구대상 집단의 표본은 2005년 12월에 입원하여 정신분열병진단을 받은 자 중 조사에 응답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36명을 임의표출 하였다. 이 중 재활병동에 입원하여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18명을 실험군으로, 같은 기간 동안 일반병동에 입원하여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18명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20~30대가 실험군 77.8%(N=14), 대조군 61.1%(N=11)이며, 전체 69.5%(N=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재활 기관을 이용하는 다수의 정신장애인이 직업재활 및 사회복지에 필요한 연령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구성에서 실험군은 남자 55.6%(N=10), 여자 44.4%(N=8)이며, 대조군은 남자 44.4%(N=8), 여자 55.6%(N=10)로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율은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에서 대학원 졸업까지 분포되어 있다. 실험군은 고졸 66.7%(N=12), 대졸이상 22.2%(N=4)이며, 대조군은 고졸 50%(N=9), 대졸이상 33.3%(N=6)로 고학력을 나타내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실험군 72.2%(N=13), 대조군 61.1%(N=11)로 전체 66.7%(N=24)나타났다. 경제 상태는 실험군·대조군모두 72.2(N=13)%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이것을 연령분포와 비교해 볼 때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면서, 부모나 형제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의존상태로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유병기간은 5년 이하가 전체 16.7%

(N=6)이며, 10년 이상은 실험군 55.6% (N=10), 대조군 22.2%(N=4)로 실험군에서 만성 정신장애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이상의 만성정신장애인 이면서도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실험군의 50%(N=9)가 30대로서 직업재활을 통해 경제적인 독립을 희망함을 알 수 있었다. 종교별 분포는 전체 기독교/천주교 52.8%(N=19), 불교 25%(N=9), 무교 19.4%(N=7), 기타 2.8%(N=1)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의 동질성 검증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성이 확인 되었다<표 1>. 또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 종속변수인 대인관계와 스트레스대처방식 점수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1>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N=36)

특성	구분	실험군	대조군	전 체	X ²	p
		빈도%	빈도%	빈도%		
연령	20대	5(27.8)	7(38.9)	12(33.4)	5.347	.253
	30대	9(50.0)	4(22.2)	13(36.1)		
	40대	2(11.1)	6(33.3)	8(22.2)		
	50대	2(11.1)	1(5.6)	3(8.3)		
성별	남	10(55.6)	8(44.4)	18(50.0)	.444	.740
	여	8(44.4)	10(55.6)	18(50.0)		
교육수준	중졸	2(11.1)	3(16.7)	5(13.9)	1.029	.598
	고졸	12(66.7)	9(50.0)	21(58.3)		
	대졸이상	4(22.2)	6(33.3)	10(27.8)		
유병기간	1~5년	3(16.7)	3(16.7)	6(16.7)	4.850	.183
	6~10년	5(27.8)	11(61.1)	16(44.4)		
	11~15년	3(16.7)	1(5.6)	4(11.1)		
	16년 이상	7(38.9)	3(16.7)	10(27.8)		
종교	무교	5(27.8)	2(11.1)	7(19.4)	2.883	.578
	기독교/천주교	8(44.4)	11(61.1)	19(52.8)		
	불교	5(27.8)	4(22.2)	9(25.0)		
	기타	-	1(5.6)	1(2.8)		
결혼상태	미혼	13(72.2)	11(61.1)	24(66.7)	2.452	.484
	기혼/동거	2(11.1)	2(11.1)	4(11.1)		
	이혼/사별	3(16.7)	5(27.8)	8(22.2)		
경제상태	상	1(5.6)	1(5.6)	1(5.6)	.000	1.000
	중	4(22.2)	4(22.2)	8(22.2)		
	하	13(72.2)	13(72.2)	26(72.2)		

<표 2> 종속변수의 사전점수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집단	구분	실험군		대조군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대인관계		75.22	21.71	85.44	21.05	-1.434	.161
스트레스대처		40.61	13.99	49.22	13.87	-1.854	.072

p < 0.5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장애인의 대인관계와 스트레스대처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실험설계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를 사용한 유사 실험 연구이다.

3. 연구도구

1) 직업재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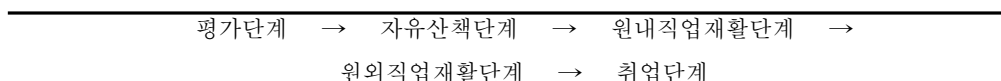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은 입원 한 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기능에 따라 사회적 적응 및 정신재활을 돕는 각종 교육프로그램, 보호작업, 원내직업재활, 원외직업재활, 취업 및 사회적응훈련 등으로 이루어지는 병원 내 직업재활프로그램을 말한다. 치료팀 전담제를 실시하며 모든 프로그램은 환자, 병동 치료팀, 재활치료과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내용은 <표 3>, <표 4>와 같다.

2) 대인관계 척도

이 척도는 Guerney(1977)가 개발한 대인관계 변화 척도를 문선모(1980)가 번역하고 전석균(1994)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25문항으로 구성된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적응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대인관계 적응이 낮음을 의미한다. 하위영역으로는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의 7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석균(1994)의 척도가 갖는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 이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4$ 로 나타났다.

<표 3> 치료단계



<표 4> 직업재활프로그램

주제	내 용
교육활동	약물·증상교육, 사회기술훈련, 스트레스대처훈련, 기분조절훈련, 서예, 문예, 미술, 원예요법, 컴퓨터 교육, 종이접기, 종교 활동, 요가, 노래방, VTR시청, 운동요법(테니스, 당구 등), 심리극.
사회적응훈련	원내봉사활동, 문화탐방, 영화관람, 노래방, 요리 및 시장보기, 수영, 등산, 자율의출, 자율의박, 야유회.
원내직업재활	매점보조, 찻집운영, 구두닦이, 컴퓨터운영, 원내세차, 원내하역작업, 보호작업(식품정리, 종이가방 작업, 전선작업 등).
원외직업재활	식품회사, 주유소, 세차장, 토끼농장, 용역(건축일, 단감 따기 및 선별, 감자 캐기, 양파 캐기).
취업	식품회사, 묘목장, 찜질방, 호텔 도우미, 주유소.

3)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이 척도는 Folkman 과 Lazarus(1985)가 개발한 6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대처 방식 척도를 김정희와 이창호(1985)가 수정·보완한 6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대처방식 척도는 문제 집중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요인을 적극적 대처로, 정서 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요인을 소극적 대처로 대별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하지 않음’에 0점, ‘아주 많이 사용’에 3점을 주어 각 대처방식별로 합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대처방법의 이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정희와 이창호(1985)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이었으며 4개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문제집중적 대처 .95, 사회적지지 추구 .87, 정서 완화적 대처 .94, 소망적 사고대처는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대처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5$ 이었으며 각 하위요인별의 신뢰도는 문제집중적 대처 .90, 사회적지지 추구대처 .74, 정서완화적 대처 .85, 소망적 사고대처 .82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1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단순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한 뒤 χ^2 -test를 이용하였고, 대인관계와 스트레스 대처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α 를 이용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및 사후검사 차이검증은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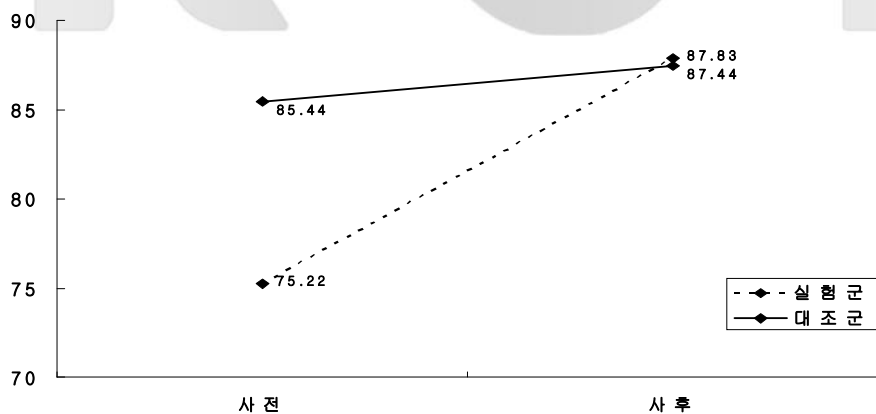
1. 직업재활프로그램의 효과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대인관계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t-test한 결과, 실험군의 대인관계의 사전 평균 점수는 75.22점, 사후 평균점수는 87.8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3.270$, $p=.005$)<표 5>, 그림 1). 그러나 실험 전 대인관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3.147$, $p=.085$)<표 6>. 이 결과에서 대인관계는 $p < .05$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지만 $p < .10$ 에서는 그 효과가 의미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 실험군과 대조군의 대인관계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구분	사전		사후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실험군(N=18)		75.22	21.71	87.83	17.22	-3.270	.005
대조군(N=18)		85.44	21.05	87.44	20.38	-.813	.427

$p < 0.5$



<그림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후 대인관계 점수변화

<표 6>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후 대인관계의 공변량 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p
집단	461.832	1	461.832	3.147	.085
오차	4843.471	33	146.7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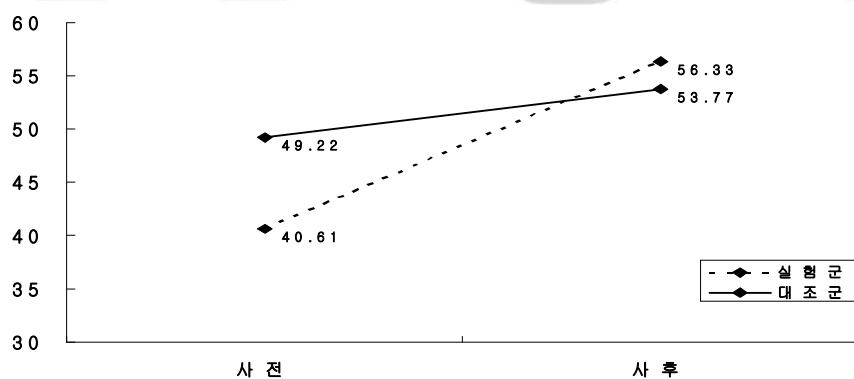
p < 0.5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적극적 스트레스대처방식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t-test한 결과 실험군의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가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5.073, p=.000)<표 7>,그림 2). 실험 전 적극적 스트레스대처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한 결과 실험군의 점수가 대조군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므로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F=5.064, p= .031)<표 8>.

<표 7> 실험군과 대조군의 적극적 스트레스대처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구분	사전		사후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실험군(N=18)		40.61	13.99	56.33	12.75	-5.073	.000
대조군(N=18)		49.22	13.87	53.77	14.50	-2.120	.049

p < 0.5



<그림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후 적극적 스트레스대처 점수변화

<표 8>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후 적극적 스트레스대처의 공변량 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p
적극적 스트레스대처	집단	544.349	1	544.349	5.064	.031
	오차	3547.349	33	107.495		

p < 0.5

2. 논의

본 연구는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대인관계와 스트레스대처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한 것으로써, 이러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여 얻어진 결과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대인관계가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t-test한 결과,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대인관계 사후 점수는 사전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실험전 대인관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한 결과에서 p < .05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p < .10에서는 의미있는 효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직업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얻게 된 성취감·만족감·이해성의 증진이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되었고, 많은 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보다 넓은 대인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 대인관계 향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적극적 스트레스대처방식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t-test한 결과,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적극적 스트레스대처 사후 점수는 사전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적극적 스트레스대처에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험군에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문제집중적 대처방식의 사용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개인의 문제행동이나 환경적인 조건을 변화시켜 스트레스의 근원에 직접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보다 문제집중적 대처에 취약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은 정신분열병의 증상조절에만 초점을 두고 약물위주의 치료만 제공했다는 점과 자신의 가치를 새로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폐쇄된 공간 속에서 제한된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을 통해 보다 넓은 대인관계를 경험할 수 없었고,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지 않아 스트레스도 점차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직업재활프로그램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병원 내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음성증상과 양성증상이 남아있어 프로그램 참여에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편견과 협력 부족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이 만족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의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하였고 주로 단순 노무 작업에 참여하여 힘들어했으며 힘든 만큼 보수도 적어 직업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정신장애인들의 기능을 회복하여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경남소재의 국립부곡 정신병원 내의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장애인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에 있어서 직업재활은 단순히 직업적 능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에 중요한 프로그램으로서 취약성을 보완하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효과가 있다 또한 직업재활을 통해 대인관계와 적극적 스트레스대처가 향상됨에 따라 여러 상황적 사건에 대한 극복능력이 증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좀 더 적극적으로 직업재활에 참여하여 궁극적으로는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장애인의 대인관계와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재활의 한 방법으로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도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실험설계이다.

연구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연구대상은 경남소재의 국립부곡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정신분열병환자 중 실험군 18명, 대조군 18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는 임의 표출한 40명을 대상으로 각도구의 신뢰도 검정을 실시한 후 대인관계 척도, 스트레스대처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동질성 검증은 χ^2 -test를 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및 사후검사 차이 검증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재활프로그램은 정신장애인의 대인관계향상에 효과가 있다.

둘째, 직업재활프로그램은 정신장애인의 적극적 스트레스대처방식에 효과가 있다.

상기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대인관계나 스트레스대처에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는 만큼 재활기관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이 마련되어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재활과 사례관리를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정신보건분야에 직업재활개발인력이 배치되어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지지프로그램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정신장애인 재활에서 직업재활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직 후 뿐만 아니라 추후 측정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성애(1997). 정신과 개방병동환자를 위한 사회기술훈련프로그램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위영, 나운환(2001). **직업재활개론**. 서울: 나눔의 집.
- 김경남(2003). 정신장애인을 위한 심리극이 인간관계변화 및 치료요인에 관한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봉(2001).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만성정신장애인들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건, 이문숙, 이종길(1999).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정신분열증 환자의 대인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The 1990 Seoul International Sport Science Congress**, 1027-1034.
- 김상숙(1997).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정신질환자의 우울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소형(2002).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가족의 지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삶의 질.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숙(1997). 만성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훈련 프로그램 활용에 관한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실(2005). 정신장애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정신장애인이 인지한 가족기능 및 가족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숙(2001). 정신분열병환자를 위한 현실요법중심-정신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자(2005). 취업정신장애인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질적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이창호(1985).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구성요인 및 우울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행동과학연구**, 7, 127-138.
- 김진희(2003).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이 만성정신분열병환자의 자아존중감·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동석(2001).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23(2), 33-53.
- 나운환(2001).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개입 방안에 관한연구. **직업재활연구**, 12(2), 173-193.
- 나운환(2002).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4(2), 53-71.
- 나운환(2002). 정신장애 유형별 직업적특성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12(2), 69-88.

- 노춘희(2001).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만성 정신질환자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정신간호학회지**, 10(4), 508-520.
- 문선모(1980). 인간관계훈련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일 연구. **경상대 논문집**, 19, 195-204.
- 박석돈, 조주현(2002).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원리와 직업배치 유형에 관한연구.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39, 147-168.
- 박석돈(200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Paradigm에 관한 연구.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41, 285-301.
- 박석돈(2003). 직업재활과정에서의 직업평가사의 역할·기능 및 전문능력에 관한 고찰.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41, 3-20.
- 백운아(2001). 직업재활프로그램과 사후지도가 정신분열병 환자의 직업재활에 미치는 여향에 관한 연구. **승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영희(2001). 대학병원 정신과 환자를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사례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진환, 이만홍(2000). 정신분열병 환자를 위해 개발된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효과. **신경정신의학**, 39(1), 89-99.
- 서진환(1999). 정신분열병 환자를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연구-문제해결 기술 훈련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수, 김현실(1999). 사회기술훈련이 만성정신분열증 입원환자의 대인관계와 주장행동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8(2), 331-342.
- 양수, 최연숙(2000). 외모가꾸기 훈련이 만성정신분열증 입원환자의 외모만족과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향상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9(3), 368-380.
- 우재희(2000). 정신분열병 정신장애인의 취업유무에 따른 사회관계망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숙자, 양수, 이종은(1999). 비디오 유머중재가 정신질환자의 대인관계 및 정신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8(2), 319-330.
- 이달엽(1997). **재활과학론**. 서울: 형설출판사.
- 이달엽(2003). **장애와 상담**. 서울: 교육과학사.
- 이달엽(2004). **직업개발과 배치**. 서울: 학지사.
- 이미영(2003). 정신장애인 요양시설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윤(1998). 미술요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간호중재가 정신질환자의 자아존중감·우울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진(2001). 집단미술치료가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사회생활기술과 대인관계 변화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연주(2000). 정신분열병 환자를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William anthony의 직업재활모델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진, 신윤주, 양영주, 전성희, 이정매, 한상숙(2004). 치료레크리에이션프로그램이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변화 및 음성증상에 미치는 효과. **임상간호연구**, 10(1), 160-171.
- 이흥식(1995). **정신분열증**. 서울: 진수출판사.
- 임갑빈(1993). **인간관계론: 만남, 창조 그리고 미래를 위한**. 서울: 동문사.
- 장혜경(1996).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화순(2003).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이 정신분열병환자의 주장행동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석균(1994). 정신분열증 환자의 재활을 위한 사회기술훈련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승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은경, 이시래, 서정근(2000). 원예치료프로그램(HTP)이 정신장애인의 자아상태, 대인관계 및

- 면역글로블린 IgG함량에 미치는 효과. **한국식물·인간·환경학회지**, 3(3), 29-37.
- 최동애(1992). 만성정신분열증환자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에 관한연구: 신경정신병원 외래 환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두희(2002). 현실요법 중심 집단정신간호가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성, 대인 관계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애나(2000). 음악치료가 정신질환자의 대인관계기술과 정신병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경희(2000).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상순(1989). 만성정신장애자의 자아강화를 위한 심리극활용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태연, 이충순, 한은선(1996). 현대정신보건과 지역사회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사회 재활치료 프로그램. 용인정신병원.
- 황태연, 한은선, 이충순, 한양순, 이민수, 이대희(1995).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만성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용인정신의학보**, 2(2), 151-165.
-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0-170.
- Guerney, B. G. (1977). Relationship Enhancement: Skill-Training Programs for Therapy, Problem, Prevention, and Enrichment, *Training and development Journal*, sep vol 39(9), 84-85.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Coping and adaptation. In W. D. Gentry(Eds.), *The handbook of behavioral medicine*, New York : Guilford, 282-325.
- Liberman, R. P. (1982). *Social factors in schizophrenia*, in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nnual Review*(Volume 1). Edited by Grinspoon L.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97-111.
- Necholson, E. R., Herfeld, R. W. (1992). A dynamic vulnerability perspective on stress and schizophrenia.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2, 117-130.
- Neuchterlein, K. & Dawson, M. (1984). A heuristic vulnerability/stress model of schizophrenic episodes. *schizophrenia Bulletin*, 10, 300-312.

The Effectivenes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tress Coping Methods in People with Mental Disorder

Young Cheon Kim

Daegu University

Woon Hwan Na

Daegu University

Seung Won Jeong

Daeg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applicability of a vocational training as part of rehabilitation program. Groups of inpatients with schizophrenia in a mental health unit received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training program to see its effects on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tress coping methods. The study was designed with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The research was conducted from 1st of January to 31st of March in 2006. The participants are recruited from inpatients of Bugok National Hospital in Kyoung-nam and divided into two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n=18) and the control group(n=18). For the method, 40 randomly selected inpatients were tested with measurements for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tress coping methods after examining the validity of these measurements.

The results are analyzed using SPSS. In order to exam equivalence, χ^2 -test was used. T-test and ANOVA are used to test equivalence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nd difference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The summary of the results are:

Firstly,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is effective to improve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people with mental disorder.

Secondly,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is effective for the active stress coping methods in people with mental disorder.

Key Words : mental disorder,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coping method